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공수자리 별들. 자료제공=종이거울

# 별들과 '진리' 를 대화해요

### 이시우 천문학 박사 출판 기념회 강연

### 별들의 세계도 인간세상과 비슷

#### 평생 소유·집착·욕심없이 살다가 에너지 다하면 조용히 소멸할 뿐



◁9월 7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출판기념 강연을 하고 있는 이시우 박사. 사진=박재원 기자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을 관찰하는 천문학자와 인생과 우주의 근원을 찾기 위해 노력한 부처님이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지난 9월 7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열린 <천문학자와 별들의 대화> 출판기념 강연에서 이시우(65,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박사는 "이 책은 별의 생성과 소멸을 통해 불교의 우주관을 설명해 보고자하는 시도"이며 "천문학적 세계와 불법의 세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책이다"고 설명했다.

천문학도로, 40여 년간 천체망원경을 두 눈 삼아 우주를 관찰해 온 그가 우주와 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고자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착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안성 도피안사에 기거하며 원고 집필에 몰두한 그는 이 책을 통해 우주의 질서와 가르침이 불법과 너무도 닮아 있음을 새삼 깨우쳤다고 고백한다. 책 곳곳에 인용된 <금강경>과 <화엄경>, <열반경>, <유마경> 구절들은 그가 '천문학과 불교의 만남'을 위해 노력한 흔적



### '천문학자와 별들의 대화'

이시우 지음  
종이거울 / 1만8천원

이라 할 수 있다. "경전을 읽으면 입을 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 법계를 아우르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별들에게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별들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는 매우 비슷합니다. 단지 별들은 태어날 때 평생을 살아갈 양식을 지니고 나오기 때문에 소유나 집착, 욕심이 없다는 것이 인간과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우리가 별을 통해 배워야 할 점도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은 지난 세대가 흩뿌린 잔여물로 생성되고,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소비하면 조용히 소멸하는데, 이러한 '주고받음'의 관계를 인간관계에 비유해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고 그는 말한다.

"별을 보는 것 자체가 자신의 불성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 부처', '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별을 바라보고, 거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자 한 노력을 1장 '별의 세계'에 담았다. 2장 '은하의 세계와 우주', 3장 '태양계의 세계'에는 천문학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기 쉽게 풀이해서 실었다.

"해변에서 가까운 곳을 바라보면 물결이 일렁이고 파도가 부서지는 것만 보이고, 먼 곳을 바라보면 잔잔한 수평선만 보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부딪치는 소소한 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저 먼 곳의 별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생멸 속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안성= 여수영 기자 snoopy@buddhapia.com

### 새로운 책

<선우논강>(선우논강 역음, 선우도량, 값 1만원)= 조계종의 토론수행모임인 선우도량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초기 불교 승가의 수행과 수행환경',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를 주제로 개최한 6회 및 7회 선우논강의 기조강연과 발제문, 대중토론 녹취문을 담았다.

<불교만화이야기 7권>(불교만화연구소, 값 3천원)= 지난 7월 창립 1주년을 맞는 불교만화연구소가 <불교만화이야기> 7권을 펴냈다. 삼베와 고무레를 배워보는 '만화로 풀어보는 불교교리', '현각 스님 인터뷰' '잡니를 찾아서', '생각해보는 불교카툰'과 '틀린 그림 찾기' 등이 실려 있다.

<힌두교>(스가누마 아카리 지음, 문음식 번역, 예래, 값 1만1천원)= 일반 중앙대학 학장을 역임한 스가누마 아카리 박사가 쓴 <힌두교>는 인도문화의 기반을 이루는 힌두교의 특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개론서다. 힌두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지, 힌두교가 인도인들의 생활과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등을 살펴본다.

**알림** 437호 '새로운 책'에 소개된 <성철 스님의 무소유>(고수영 지음, 리더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판사측이 전량 회수·폐기한 책임을 알려드립니다.

## 티베트인의 진술·지혜로운 삶

### '티베트 우화'

오코너 대위 채록  
청어람 미디어 / 8천5백원

티베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달라이라마, 포탈라궁, 오체투지, 조장(鳥葬) 등. 티베트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듯 불교와 관계되는 신비스런 이미지들을 떠올린다. <티베트 우화>에 실린 22가지 우화들은 신비화된 티베트의 이미지들을 떠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티베트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책은 티베트인들 사이에서 전해져온 옛 이야기를 192년 '티베트-앵글로 협정'을 위헤티

베트로 날아간 영국의 오코너 대위가 채록해 엮은 것으로 티베트인들의 진술하고 지혜로운 삶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산토끼, 호랑이, 원숭이, 거북이의 이야기부터 티베트에서만 볼 수 있는 야생 당나귀 강의 이야기들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생쥐에 비유한 고달픈 티베트인들의 삶의 모습도 소개했다. 이 가운데 티베트와 불교의 색채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소박한 이야기들을 1부로, 티베트 고유의 문화와 역사성이 짙은 내용을 2부로 묶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라"



"갑작스럽게 벗어나기 전에는 너무도 힘들고 막막했었는데 막상 벗어나고 보니 참으로 간단한 것이 자신을 알아보고 있었고, 자신을 가두어 놓았으며, 모든 길을 가로 막고 있었다. 이렇듯 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수 있게 해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오로지 내 자신의 마음에 있었다."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은 (사)밝은세상 명상아카데미의 이사장인 혜봉 법사가 90년에 서암 스님에게서 '무(無)' 자 화두를 받은 후 전국의 제방선원을 비롯해 동남아 불교국가를 만행하며 얻어낸 수행의 기록이다.

###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법사 지음  
불광출판부 / 9천원

이 책은 '관법명상', '진언명상', '절명상', '염불명상', '화두명상' 등 5가지 명상법으로 분류돼 있다. 저자는 '관법명상'에 대해 생각을 그치고 분별에서 벗어나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일념(一念이 되도록 소리에 집중하려는 '진언명상', 절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비워짐을 느끼는 '절명상', 오직 염불소리만 남을 때까지 쉬지 않고 염송해야 깨달음이 전해진다는 '염불명상'이 소개돼 있다. 김주일 기자

### 금주의 베스트셀서 10

책방 예시야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매킨지	김영사
2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공리
3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우승택	장승
4	파도마 삼바바	백이제	민음사
5	영원한 대자유인을 읽고	정봉스님	경서원
6	시공불교사전	곽철환	김영사
7	더 오래된 과학, 마음	헤르벤스외	예시야문
8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스님	시공사
9	티베트 금강경	깨달라질라	도피안사
10	산중일지	현척지영사	

도서 안내: (02)737-0695

---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예시야문 전화: (02)737-0695

##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하세요!**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 앞면 : 그리움의 노래 -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의 세계가 어떤곳인가를 알게하고 염불참선의 진미를 들려줍니다.
- 뒷면 : (1)선근인연가 - 민족과 국가의 인연에서부터 고향, 이웃 가족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인연의 고리를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2)부모은중가 - 부모, 오늘의 우리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면 눈물없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은혜의 노래 (3)불전참회가 - 참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노래합니다. (4)회향산회가 -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부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인욕을 당부하셨을까요? 들어보면 알게됩니다.

● 책+테이프 = 5천원 / 입금호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금산정사)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산정사**

## 납골당 설치 및 운영방법 안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묘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화장 장례 정책'이 효과를 보게 되어 대부분 국민들이 화장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점차 화장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지만 아직 납골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납골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골문화발전과 사찰 납골당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장안낙원에서는 획기적인 "사찰 납골 활성화 사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범위]**

- 납골(추모)당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찰
- 납골(추모)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찰
- 납골 시설 설치부지가 협소한 사찰

**[장안낙원 지원사항]**

- 납골당 시설 및 관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제공
- 각종 법률적인 인허가 문제 해결
- 최고 시설의 인지도 자가 보급
- 각종 제사 유지로 부대수입 기대

→ 해결방안

**초기 기획에서부터 납골시설 허가, 설치공사, 신도확보, 납골당 운영까지 책임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031)901-1954, 017-755-1954, 011-276-2135  
 ■ 주 최 : 장안사 장안낙원 ■ 협 력 : 한국납골문화연구원